

# 불교유치원 설립 안된다?

신도시 포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불교유치원 설립이 지역 이익집단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청도 운문사(주지 흥륜는 내년 개원을 목표로 대구 배후 도시인 경산시 사동 655-2번지에 유치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지역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수개월째 갈등을 겪고 있다.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는 리는 유아교육기관의 수급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 매년 어린이들은 줄어든다고 있는데 신생 유치원이 들어서면 기존 유치원들의 운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운문사 부설 유치원이 들어설 사동과 인근 동부동의 2005년 12월 인구통계를 보면 만 3~5세 아동의 수가 1269명이 불과하지만 시설은 33곳(유치원 5·어린이집 28)에 인가된 정원이 3190명이어서 유아교육기관은 이미 포화상

## 운문사 1998년 부터 준비... 올 1월 공사 착수 지역유치원연합회 "시장 포화"이유 결사반대

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시작한 불사인만큼 운문사의 의지는 확고하다. 운문사는 경산 신도시가 계획되면 1998년, 유치원 설립을 목표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 부지 500여 평을 매입했다. 국내 최대의 비구니승가대학으로 오래전부터 세속포교를 위한 유치원 설립을 준비해왔지만 사종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올해 1월 28일 겨우 기공봉회를 치르고 본격적인 유치원 건립봉사를 시작했다. 총공사비 20억원 가량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유치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아교육 시설일

체인 이성건축이 설계를 담당한다. 운문사측은 △경산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불교 유치원의 특성상 인근 유치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기존 유치원들도 우수한 시설과 교육의 질로 경쟁한다면 운문사 부설유치원이 개원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운문사 총무 정호 스님도 "일부 반대하는 이들이 조계종과 운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문사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3월 24일 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

서 이들의 주장이나 명분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교육청의 관계자는 "올해 초 운문사가 유치원 설립을 신고해왔지만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 민원이 워낙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적 미비점이 없는 만큼 5월초에 열리는 '유아교육심의위원회'가 설립인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유치원들을 의식해 운문사가 원하는 것(12학급·240명) 보다 규모가 작은 6개 학급 수준으로 인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경산시에선 사립 28곳, 초등학교병설 27곳 등이 있으며, 사동 택지지구 내에는 개신교 유치원 1곳을 포함한 3곳의 유치원이 이미 개원한 상태다. **조홍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원용선씨 만장일치 추대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원용선 수석부회장(59학번, 영문·사진)이 4월18일 열린 임시이사회 및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원용선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동문회관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임기 내 5억원을 모금하겠다"고 밝혔다. 또 "4월 10일 선출된 류근창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4월10일 류근창 교문을 회장으로 추대한 동국포럼 관계자는 "총동창회가 화합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며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 되었다. 앞서 총동창회는 회장 후보자 등 록시 발전기금 5억원(보궐선거 2억원) 이상의 기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규칙을 제정했다. **남동우 기자**



제1차 세계불교포럼이 4월16일 중국 보타나기산 남해 관음성지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중국 종교자유의 희망 시사

### ■세계불교포럼 의의와 전망

제1차 세계불교포럼이 4월 16일 저우산(보타나기산) 남해관을 대불 앞 특별법회장에서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자무양 스님은 제1차 세계불교포럼 결과보고를 통해 "이번 3박4일간의 일정에 대한 홍콩 한국 일본 등 세계 34개국에서 1000여 불교지도자가 참여해 이구동성으로 세계의 화합을 염속하게 노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1차 세계불교포럼 보타산 선언문 채택과 낭독이 있었다. 이 선언은 △선한 마음을 키우고 선함을 행하면 인간의 마음이 선해진다 △가족간에 사랑이 굳건하고 충만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협력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존중하면 문명간의 화합이 이루어진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원한이나 미움을 우정으로 바꾸면 세상이 평화로워 진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배불균형과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중국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은 불교를 활용하겠다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 가치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불교를 확대함으로써 급속도로 교세가 확산되고 있는 서방종교에 대항하겠다는 의미도 크다는게 참가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랭카스터 미국 서부대 총장은 "이번 포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 1만여명 운집 성황리 개최

### 격년개회 약속 등 의욕 과시

중국 종교 자유의 희망적인 미래를 시사하는 것 같다"며 "2년마다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세계각국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제1차 세계불교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켜본 한중일 3국 불교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한중일 나라를 돌아가며 열려 3국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오던 한중일 불교대회의 존재가 이번 대회로 인해 축소되거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글·사진/중국 저우산=김주필 기자**

중국 종교 자유의 희망적인 미래를 시사하는 것 같다"며 "2년마다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세계각국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랭카스터 미국 서부대 총장은 "이번 포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가했다. 이번 대회의 실질적인 행사 추진 실무자였던 중국중앙종교국 업무소 국장도 "이번 포럼은 비록 종파는 다르지만 세계의 불교를 하나로 화합시키는 큰 계기가 됐다"며 "2년마다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세계각국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제1차 세계불교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켜본 한중일 3국 불교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한중일 나라를 돌아가며 열려 3국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오던 한중일 불교대회의 존재가 이번 대회로 인해 축소되거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글·사진/중국 저우산=김주필 기자**

## 조지아대 학생들 참선 실수 해선 스님 초청 질의응답도

한국 스님과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만났다. 조지아대 2006년도 불학기 '영화와 문화를 통한 불교'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16명 학생들이 한미선원 해선 스님 지도로 4월 10일 캠퍼스 내에서 참선실수를 했다. '영화와 문화를 통한 불교'는 2003년과 2005년 운문사와 송광사 및 대흥사 템플스테이가 다녀 온 조지아대 장학재단 소속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개설된 과목.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은 좌선과 차분화, 출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해선 스님은 참선에 담긴 의미와 불교의 수행법,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했다. 학생들은 개인교, 천주교, 유대교인들이었지만 참선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다. 종교적인 이유라면 참선수업에 불참해도 무방하다고 사전에 통보가 돼 있었지만 수업에 불참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한명우 기자**

## "타국살이에 지친 이들 쉬어가세요"

### 조계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개원

조계사주지 원담에 외국인노동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조계사는 4월 16일 교육관 1층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마이트리'를 개원했다. 마이트리는 '진실한 우정'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조계사는 마이트리를 통해 안과와 내과, 치과 등의 진료는 물론 무료 법률 상담, 한글과 컴퓨터 교육, 불

교요리 공부,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 지원봉사는 병원봉사연합회와 연세대 봉사동아리 '해우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포교사회 등이 맡을 예정.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이날 개원법회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

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많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마이트리 개원을 계기로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트리를 찾은 스리랑카 노동자 니산트(30)씨는 "심한 두통을 자주 느껴 의사선생님께 몇 가지 여주어 봤다"며 "앞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마이트리에 오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 '이웃위한 등' 많아졌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생명나눔 등'을 비롯한 이웃을 위한 등이 늘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불광사는 '이웃을 위한 등'을 위해 모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등은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나 홀방 등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거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불이 켜진다. 부사 대원정사(상임법사 양재형)도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생명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등수의금 전액은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 종교적 소신 독인가, 약인가 조계종 중평위 공개포럼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종교적 소신은 독인가, 약인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사회 공직자의 정교분리 준수와 종교편향에 대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5월 10일 오전 10시 한국일보사 12층 송년클럽에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김상경 동국대 법대 교수가 발제하고, 윤원철 서울대 교수와 박희택 위덕대 교수, 유근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02)732-7272 **박봉영 기자**

### 목탁소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봉은사가 4월 16일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1회 도전! 불교를 울려라' 퀴즈 대회를 열었다.

### 불교상식에 어두운 청소년불자들

10개 학교에서 100여 학생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 1등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참가자들에게 도서상품권과 롯데월드·아쿠아리움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푸짐한 부상이 눈길을 끌었다. 기출문제는 중립학교 교법사단이 중·고교 종교 교과

### 목탁소리

서, 역사 교과서, 봉은사지에서 출제해 2주 전 일괄 배포했다. 주최측은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불교상식에 어두운 청소년불자들

10개 학교에서 100여 학생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 1등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참가자들에게 도서상품권과 롯데월드·아쿠아리움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푸짐한 부상이 눈길을 끌었다. 기출문제는 중립학교 교법사단이 중·고교 종교 교과

### 목탁소리

서, 역사 교과서, 봉은사지에서 출제해 2주 전 일괄 배포했다. 주최측은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불교상식에 어두운 청소년불자들

10개 학교에서 100여 학생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 1등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참가자들에게 도서상품권과 롯데월드·아쿠아리움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푸짐한 부상이 눈길을 끌었다. 기출문제는 중립학교 교법사단이 중·고교 종교 교과

##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연합법회 및 산사음악회

## 제1회 성남불교 만해축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만해스님 시목우서예전

삼보에 귀의 하옵고 금번 행사는 성남의 모든 사암이 일심으로 마련한 자치단 소중환 축제의 정입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의 탄신을 기념하는 봉축연합법회 및 가수 남진 및 스리랑카 국립무용단을 초청한 산사음악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성남 시민들에게 건전한 문화마당을 펼쳐서 부처님 오신 날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삼보에 귀의 하옵고 만해 선사의 법통을 잇고 있는 저희 봉국사는 불기255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친견하고 또한 만해스님의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성남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주인공 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봉축연합법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남의 모든 사암이 봉국사에 모여서 일심으로 연합하여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수회 동참 바랍니다.

- 장소: 봉국사 특별무대
- 일시: 불기2550년 5월 5일 오후 6시 30분

**2. 산사음악회**  
가수 남진 및 스리랑카국립무용단과 국악연주단을 초청하고 봉국사 내 찬불단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불교를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장소: 봉국사 특별무대
- 일시: 불기2550년 5월 5일 오후 7시 10분 ~ 9시 30분

◆ 주최: 성남시 불교 사암총연합회 ◆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봉국사(성남 불교역사문화 연구소)  
◆ 후원: 불교TV, 불교방송, 이름방송,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국민상조

**1.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부처님께서 생전에 스리랑카를 방문하였을 때 주석하셨던 네가디파 라즈마하 비하리 사원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 진신 사리를 스리랑카 총리(스님)께서 직접 이운해 오셔서 친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소: 봉국사 심검당
- 일시: 불기2550년 4월 28일 오전 10시 ~ 5월 5일

**2. 만해스님 시 목우서예전**  
만해 선사의 유일 상좌이신 춘성 스님, 그 상좌이신 봉국사 회주 혜성 스님에 이은 목우 스님이 쓰신 만해 선사의 선시 작품전입니다.

- 장소: 봉국사 심검당
- 일시: 불기2550년 4월 28일 ~ 5월 5일

대한불교 조계종 영장산 봉국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216-2 문의: 031)755-0329, 010-2711-0639